

“꿈과 이상의 좌절이 광기 불러온다”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분석한 천재와 광기...

이상에 대한 집착이 광기 일으키는 결정적 요인

신용구 | 안양중앙병원 정신과 과장

천재들은 그들의 천재성만큼 삶도 특별하고 유별나다. 대중과 유리된 채, 좌충우돌 비상과 추락을 거듭하며 산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이상이 높은 천재들은 현실에서 자신의 꿈과 이상이 흔들리면 불안을 느껴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자기방어의 과정에서 자신을 순교자의 위치로 격상시킨다.

천재들에게는 광기(狂氣)가 있다고 한다. 광인은 정신 의학적으로 '인지 기능 및 사고 기능의 이상으로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들은 충동적이고 폭발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특성이 있다. 그럼 광기를 보이는 천재들은 모두 미치광이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그건 아니다. 물론 반 고흐 같이 자신의 귀를 자르고 결국에는 권총으로 자살을 감행했던 정신분열병의 증상을 지닌 천재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재들의 광기란 범인들이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그들의 천재성에서 비롯된 폭발적인 힘을 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거의 1~2주 사이에 책을 한권씩 썼다.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는 신들린 사람처럼 샷을 휘두른다. 이런 것들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광기와 천재성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조와 파괴를 오가는 천재들의 광기

그렇다면 천재성에서 비롯된 광기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천재들의 삶을 보면 조금은 짐작할 수 있다. 천재성만큼이나 그들의 삶도 특별하고 유별나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은 양극단을 오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태산처럼 우뚝 솟은 봉우리가 됐다가도 심연으로 추락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락을 박차고 비상하는 새가 되기도 한다. 창조와 파괴는 상당수 천재들에게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다.

진시황. 13세에 임금인 그는 30대 후반에 수백년간 계속된 중원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집권제를 도입한 그는 반란을 일으킨 동생을 죽이

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내쫓았다. 서책을 불사르고 유교를 탄압하기도 했다. 천재의 참혹한 적개심과 파괴성을 엿볼 수 있다.

전제주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시민혁명을 이끈 전략의 천재 나폴레옹은 스스로 전제주의 황제가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쫓겨났다. 황제로 재등극하지만 탐욕 때문에 다시 추락했다.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위대한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유명세를 타다 국가 전복 혐의를 받아 시베리아로 유형을 갔다가 사형의 고비에서 벗어나지만, 마침 불처럼 일어난 도박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 많은 돈을 날려 큰 고초를 겪게 된다.

우리 한국의 인물은 어떤가. 역모 혐의로 처형된 《홍길동》의 작가 허균. 그는 금지된 것만을 골라 행한 인물이다. 첫 관직이었던 황해도 도사 시절에는 부임하자마자 기생들을 불러다 술판을 벌였고 관청에다 부처를 모셨다. 이런 일로 그는 다섯번이나 파직을 당하지만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다. 적자였음에도 서양감을 비롯한 서자들과 거리낌없이 어울렸고 전라도 부안 기생 계생과 어울리다 어머니 장례에 참석치 못하는 불효도 저질렀다. 평생 좌충우돌하며 살았던 허균의 모습이다. 천재들의 비상과 추락이 그들의 광기 때문이라면, 광인도 아닌 그들은 왜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걸까.

이광수를 통해 바라본 천재의 공통점

앞서 다룬 천재들은 거의 모두가 정상에서 벗어난 인물들이다. 이런 병적인 인물보다는 정상적인 천재의 내면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천재들에게는 공통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춘원 이광수는 해방 후 친일로 매도되는 것에 분개해서 자신의 입장을 담은 자서전을 1948년에 발표했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일제에 의해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구할 목적으로 친일을 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나오지 않아 유감이지만, 춘원의 고백서를 보면 그가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춘원이 변절할 당시 일본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전쟁을 치를 정도로 강국이었다. 그런 점에서 미약한 조선이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원하던 조선의 독립은 요원한 것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거의 20년 지기로, 그리고 자신의 정신적 스승으로 삼아온 안창호도 사망했다. 두 사람은 세상에 대한 인식과 독립운동의 방향이 모두 비슷했다.

춘원은 자서전 《나의 고백》(춘추사)을 통해 안창호의 죽음에 대한 정신적 부담과 갈등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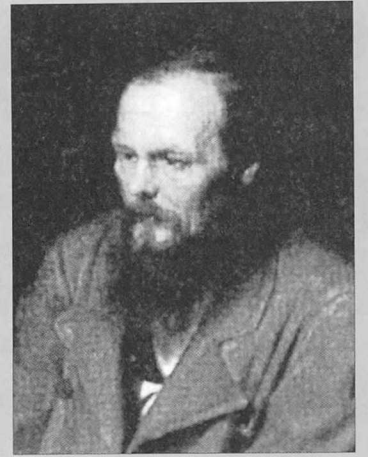
“안도산이 가니 내 처지는 더 어렵게 되었다. 동우회 사건의 전 책임이 내게 달린 것과 같다. 지금까지는 도산을 따라가기만 하면 고만이었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이 사건의 길잡이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춘원은 도산의 죽음으로 정신적인 중압감을 느끼고 있었던 듯하다. 그리고 독립이라는 목표도 이제는 상실할 운명에 놓였다. 이광수의 내부와 외부에서 많은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의 꿈과 이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과감하게 변절했다. 180도 달라져서 친일 단체인 조선문인협회 회장을 맡아 친일운동에 앞장섰다.

“일본과 조선의 뿌리는 하나다. 게다가 신앙도 문화도 하나다. 서먹서먹하게 변한 지 천년 이상이 된다. 하지만 그 사이에 피와 문화를 끊임없이 교류했다. 나라와 교요도의 옛날은 신라나 백제의 옛 도시와 같은 문화였다. 고구려도 마찬가지지...” 춘원의 친일 소설 《소녀의 고백》 나오는 지문이다. 내선일체론을 주장하기 위해 갖가지 논리를 끌어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억울해 한다. 왜,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높은 이상과 집착 때문에 순교자가 된 천재들

대중과 괴리된 모습은 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천재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특성이다. 대체적으로 천재들은 자신의 천재성 때문에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이상도 높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너무도 깨끗하다고 여긴다. 천재들은 자신의 이런 욕구가 충족될 때는 현실을 탈없이 살아간다. 그러나 현실이 그들의 욕구를 언제나 채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목표를 상실한 처지에 있었던 춘원이 제국주의 일본을 등에 업고 조선 민족의 번영을 도모하려 했던 것처럼(이광수의 친일을 가장 순수하게 볼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천재들은 피해갈 수



없는 내·외부의 거센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서 자신의 꿈과 이상이 흔들리게 되면 불안을 느껴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선택에 대한 자기 방어에 나선다.

이상에 대한 집착은 요지부동으로 변하고 사고는 경직된다. 주변의 반대나 비난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회유책을 쓰다가 안되면 자신을 방대한

다른 세력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들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분개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욕구에 들어맞는 자기 합리화에 나선다.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할 때도, 그들은 춘원처럼 자신을 십자가를 진 순교자의 위치로 격상시킨다. 결국 자신은 매우 신성하고 순수한 존재가 된다. 그들의 높은 이상을 충족시키는 데는 신성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진실은 신과 인간이 공존한 역사적 예가 없다는 것이다. 천재들이여, 이제 그만 좀 하자! ●



천재들은 삶의 양극단을 오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태산처럼 우뚝 솟은 봉우리가 됐다가도 심연으로 추락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락을 박차고 오르기도 한다. 사진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들.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나폴레옹, 도스토예프스키, 이광수.